

우즈



‘완도 탱크’와 ‘황제’가 신년들어 처음 격돌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 우승으로 시즌 초반부터 상승기를 타고 있는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올해 첫 대결을 벌여 전 세계 골프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주는 25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토리파인스 골프장 남코스(파72·7천568야드)와 북코스(파72·6천874야드)에서 열리는 뷰익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1, 2라운드는 남·북코스에서 번갈아 치르고 3, 4라운드는 남코스에서 열린다.

뷰익인비테이셔널은 우즈가 2006년부터 3년째 시즌을 시작하는 개막전으로 삼고 있는 대회이며 2005년부터 3연패를 포함해 무려 다섯차례나 우승컵을 차지하는 등 텃밭이나 다름없다.

작년 9월 투어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이후 넉달 만에 우즈와 경기를 치르는 최경주는 이제 ‘우즈의 잔치’에 들러나 서는 처지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 두 번이나 우즈가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 맛을 봤던 최경주는 소니오픈 우승으로 우즈의 대회 4연패를 저지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다.

‘황제’ 텃밭서 ‘탱크’ 정상 도전

우즈·최경주 신년 첫 대결

25일 뷰익인비테이셔널 개막

우즈 3연패 등 대회 5회 우승

소니오픈에서 최경주는 약삭이던 티샷 비거리에서 정상급 선수 못지 않은 장타를 펴며 날렸고 컴퓨터 아이언샷과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퍼팅 솜씨를 보여 ‘우즈도 무섭지 않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했다.

지금까지 일곱차례 뷰익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해 세 차례나 컷오프했고 2002년 공동 18위에 올랐을 뿐 20위 밖에서 맴돌았던 과거 성적도 세계랭킹 7위까지 뛰어 오른 최경주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더구나 최경주는 어렵기로 정평이 난 토리파인스골프장 남코스에서 2002년 2라운드 때 7언더파 65타를 때려낸 적도 있다.

하지만 최경주가 뷰익인비테이셔널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릴 때부터 토리파인스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던 우즈는 “토리파인스에서 플레이는 너무 즐겁다”면서 코스와 잘짜 공감을 과시하고 있다.

우즈 뿐 아니라 대회에서 3차례 우승한 세계랭킹 2위 필 미켈슨(미국)도 부담스럽다. 샌디에이고가 고향인 미켈슨도 우즈 못지 않게 토리파인스골프장을 환하게 꿰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올해 처음 투어 대회에 나서는 우즈와 미켈슨이 토리파인스의 주인공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면서 호들갑이다.

2004년 이 대회 우승자 존 말리(미국)와 세계랭킹 4위 짐 퓨릭(미국), 그리고 비제이 싱(피지) 등도 만만치 않다. 특히 토리파인스골프장 남코스가 오는 6월 열리는 US오픈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이번 대회는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인 US오픈 예비 고사라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최경주 뿐 아니라 양용은(26·테일러메이드),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 나상욱(24·코브라골프),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 박진(31) 등 ‘코리아 브라더스’ 6명이 모두 출전하는 것도 관심사이다. PGA 투어에서 이들이 한꺼번에 출전하는 것은 이 대회가 처음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최경주



■ 심한 두통으로 귀국한 KIA 최희섭 정밀검진

“별 일 없어야 할텐데...”

KIA타이거즈 타선의 핵 최희섭이 팜 전지훈련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급거 귀국해 ‘V10’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새벽 귀국한 최희섭은 이날 오후 정밀검진을 위해 팀 지정병원인 광주 한국병원을 찾았다.

곧은 표정으로 병원에 들어선 최희섭은 컨디션을 묻는 질문에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밝혔다.

4일째 심한 두통과 현기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최희섭은 “2003년 시카고 컵스 시절 머리를 다친 이후 가끔 두통으로 고생했는데, 이렇게 아픈 것은 처음이다”며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아 직접 감독님께 귀국해 정밀 검진을 받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희섭은 지난 2003년 6월 8일 뉴욕 양키즈전에서 1루수로 나와 제이슨 지암비의 플레이 타구를 잡으려다 투수 케리 우드와 부딪치면서 넘어져 뇌진탕을 일으킨 적이 있다.

충돌 후 중심을 잃은 최희섭은 그라운드에서 뒷머리를 심하게 찰 으면서 앰블런스에 실려가 6시간 후에 의식을 찾았었다.

팜 전훈련 5분이상 서있기 힘들 정도

오늘 검사 결과...구단·팬들 무사 기원

최악의 경우 팀 V10 전력 차질 우려

이날 최희섭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고 정신을 차린 후에도 팀 동료 케리 우드의 안부를 물어 미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이후 간헐적인 두통 등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9일 팜으로 떠나기 이전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최희섭은 지난 19일부터 몸에 이상을 느껴 훈련을 중단한 채 휴식을 취해왔다. KIA의 김준제 의무 트레이너는 “팜에서 2~3차례 구토증세를 보이는 등 5분 이상 서있는 게 힘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며 “팬들이 걱정할까봐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안타까울 정도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신경외과적인 부분에 대한 검진을 해본 뒤, 내과적인 부분의 이상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희섭은 김윤모 한국병원 신경외과 원장의 기초 진료를 받은 뒤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단층촬영(CT) 및 뇌파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23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희섭은 일단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2군에 합류했다가 오는 31일 일본 미야자키로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196cm가 넘는 거구인 탓에 몸에 맞는 검사복이 없어 고생한 최희섭은 “걱정해 주시는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창을 짓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지만 빨리 나아 다시 팬들 앞에 나서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22일 정밀 검진을 위해 광주 한국병원을 찾은 KIA의 최희섭이 검사 전 취재진에게 몸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EPL 노크’ 조재진 풀럼과 곧 계약 협상

꿈이었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조재진(27·사진)이 앞으로 며칠 간 런던 연고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인 풀럼과 계약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풀럼은 설기현(29)의 소속 팀으로 조재진과 설기현이 한솥밥을 먹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잉글랜드 스포츠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22일(한국시간) ‘풀럼이 한국 스타를 좇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이 호지슨 풀럼 감독이 런던 크레이븐코티지 구장에서 진행한 테스트에서 조재진이 보여준 플레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호지슨 감독은 “조재진과 같은 급이라면 굳이 테스트용 선수로 부를 필요는 없다. 그는 한국 대표로서 일본 J-리그에서도 매우 잘 해왔다”고 말했다.

스카이스포츠는 호지슨 감독이 조재진을 데려오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며칠 간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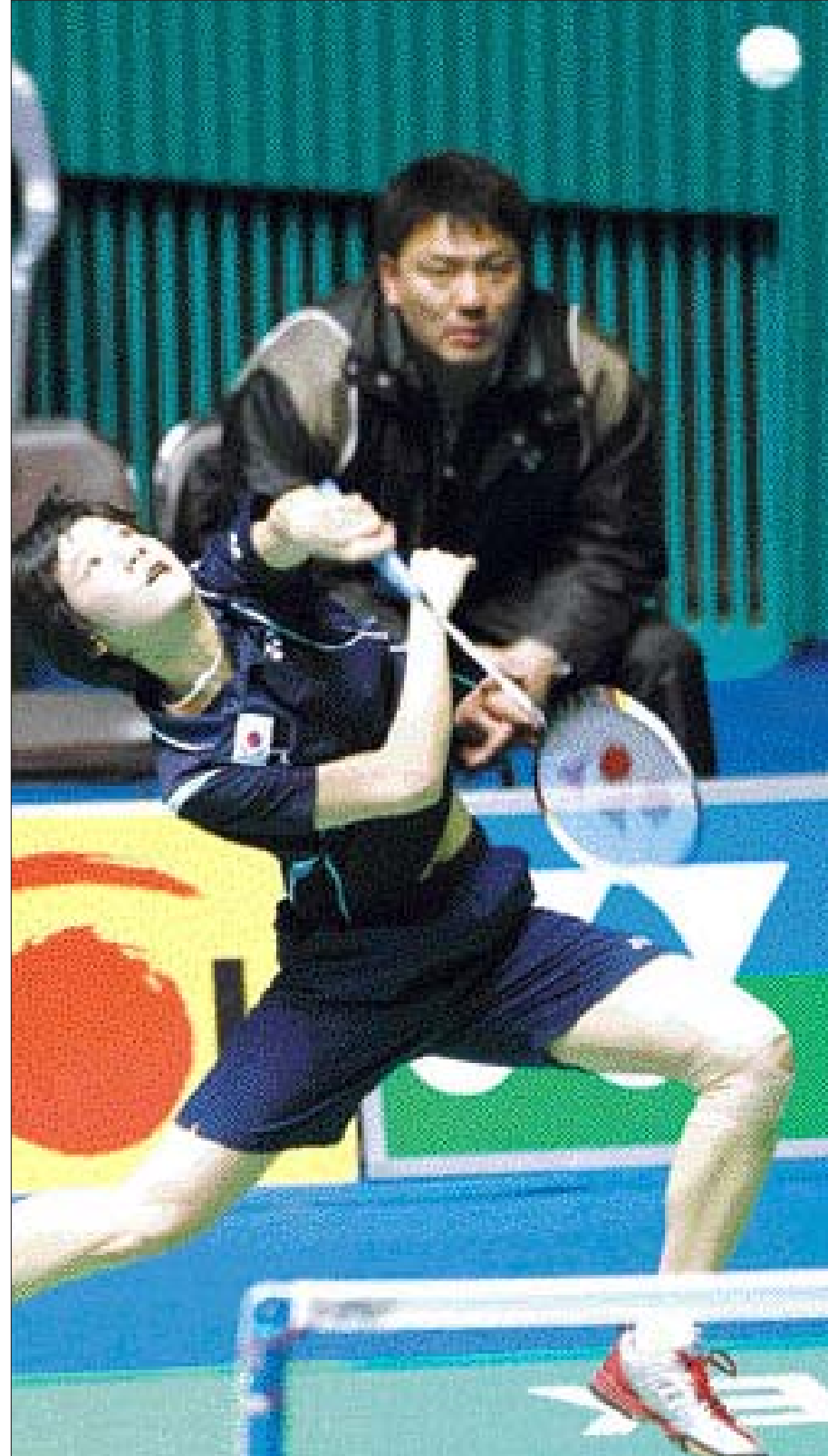
호지슨 감독은 “조재진은 매우 흥미로운 선수다. 그와 마주 앉아서 장래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빨리 적응해서 팀에 승리를 안겨줄 선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전남 유소년클럽 코치에 국가대표 출신 김도근씨



전남 드래곤즈는 22일 국가대표 출신의 김도근(36·사진)을 유소년 클럽인 U-18 광양제철고등학교의 새 코치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전남은 공격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선수 슈바(29)를 영입했다. 키 186cm, 몸무게 84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슈바는 대전에서 2시즌을 보내며 46경기에 출전, 14득점 11도움을 기록했다.

전남은 슈바의 영입으로 히로시, 시몬 등 3명의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탄탄한 공격라인을 구축하게 됐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배연주 강스매싱 22일 서울 잠정체육관에서 열린 ‘2008 요넥스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여자단식 2회전 배연주(한국) 대 찬스리수컷(태국)의 경기에서 배연주가 강력한 스매싱을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화호 와일드카드 후보

박지성 1순위·김두현 2위

축구 팬들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본선에서 사상 처음 메달권 진입을 노리는 박성화호의 와일드카드(만 23세 초과 선수) 후보 1~3위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김두현(성남), 이관우(수원)를 꼽았다.

축구전문지 ‘베스트일레븐(www.besteleven.co.kr)’이 지난달 8~16일 팬 1천 104명을 대상으로 ‘올림픽 와일드카드 1순위’를 물어본 결과 박지성이 584명(52.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잉글랜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김두현(10.2%)이 뽑혔고 국가대표팀에 다시 돌아온 ‘시리우스’ 이관우(9.4%)가 3위를 차지했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룩펠러 회원권

골프 회원권 매매	골프 회원권 매매
광주 3,450	충청 1,700
남강주 4,400	광주 1,900
승주 8,200	포항 2,100

상담 문의 (062)351-0095